논어 18편 미자 5장 · 원문·풀이

楚狂接輿，歌而過孔子，曰：「鳳兮！鳳兮！何德之衰？往者不可諫，來者猶可追。已而！已而！今之從政者殆而！」孔子下，欲與之言。趨而辟之，不得與之言。

독음 · 초광접여 가이과공자 왈 봉혜 봉혜 하덕지쇠 왕자불가간 래자유가추 이이 이이 금지종정자태이 공자하 욕여지언 추이피지 부득여지언

쉬운 풀이(요약) · 접여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도 앞으로는 피할 수 있다며 정치 참여를 말렸다. 공자가 대화하려 했지만 그는 피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楚 회초리 초 초 / 狂 미질 광 광 / 接 사귈 접 접 / 輿 수레바탕 여 여

歌 노래 가 가 / 而 말이을 이 / 過 지날 과 과 / 孔 구멍 공 공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鳳 봉새 봉 봉 / 兮 어조사 혜 혜

何 어찌 하 하 / 德 큰 덕 덕 / 之 갈 지 / 衰 쇠할 쇠 쇠

往 갈 왕 왕 / 者 놈 자 / 不 아닐 불 / 可 옳을 가 가

諫 간할 간 간 / 來 올 래 / 猶 어미 원숭이 유 유 / 追 쫓을 추 추

已 이미 이 이 / 今 이제 금 금 / 從 좇을 종 종 / 政 정사 정 정

殆 위태할 태 태 / 下 아래 하 하 / 欲 욕심낼 욕 욕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

言 말씀 언 언 / 趨 달아날 추 추 / 辟 임금 벽 벽 / 得 얻을 득 득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